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7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0-201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첼시와 원정 경기에서 오른 발 강슛을 작렬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역시! 빅매치 사나이

8강 1차전 막강화력 첼시 중원 봉쇄, 맨유 1대0 승 견인

퍼거슨 "수비축구의 핵…전술 능력 환상적인 선수" 극찬

박지성(30)이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숙적' 첼시를 제압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중앙과 왼쪽 측면을 오가며 위협적인 슈팅과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팀 승리에 일조했다.

맨유는 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0-201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4분 터져 나온 웨인 루니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맨유는 원정으로 치른 1차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머쥐면서 오는 13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준결승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2002년 이후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치른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첼시 원정 무승' 징크스도 기분 좋게 털어냈다.

토레스와 디디에 드로그바를 투톱으로 세운 첼시가 전반 7분 토레스의 위협적인 오른발 슈팅 등 경기 초반부터 맨유 골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첼시의 '홈 불패' 기록이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첼시는 수차례 슈팅 기회를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그 사이 전열을 가다듬은 맨유는 전반 15분 박지성의 슈팅을 시작으로 경기 흐름을 조금씩 끌고 왔다.

박지성은 라이언 긱스가 올린 왼쪽 코너킥이 드로그바를 맞고 튀어나오자 페널티지역 좌중간 안쪽으로 뛰어들며 오른발 슛을 날려 이날 맨유의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다.

상대 수비에 맞고 골대 오른쪽으로 비켜가긴 했지만, 이 슈팅을 신호탄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맨유 쪽으로 기울어졌고, 전반 24분 루니의 발끝에서 고대하던 선제골이 터져 나왔다.

긱스가 페널티지역 왼쪽 안쪽에서 크로스를 찔러주자 골대 정면에 있던 루니가 받아 오른발 안쪽으로 툭 치듯 차넣었고, 골대 오른쪽을 향한 공은 골포스트를 맞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1-0으로 앞선 맨유는 남은 시간 첼시의 파상공격에 시달렸지만, 골키퍼 판데르 사르의 수차례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며 승리를 지켰다.

박지성은 후반 들어서 수비에 치중하며 드로그바와 니콜라스 아넬카, 플로랑 말루다 등 상대 공격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경기 종료 직전까지 총 94분을 뛰고 추가시간에 크리스 스몰링과 교체됐다.

경기 종료후 맨유 퍼거슨 감독은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박지성은 환상적으로 전술을 소화하는 선수"라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주 훌륭하게 해줬다"며 박지성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 캄프 경기장에서 열린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5-1 대승을 거두고 4강 진출을 사실상 예약했다. /연합뉴스

챔스리그 우승 트로피 '빅 이어' 한국에 첫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인 '빅 이어(Big Ear)'가 처음으로 한국 팬들에게 선을 보였다.

UEFA 챔피언스 리그 공식 후원사인 하이네켄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에서 가진 '2011 하이네켄 UEFA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아시아 투어' 행사에서 빅 이어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추포' 드디어 터졌다

보스턴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상대 시즌 1호 홈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31·보스턴)를 제물로 시즌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벌어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 1회 첫 타석에서 시원한 2점 아치를 그렸다. 지난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개막전에서 첫 안타를 때린 뒤 3경기에서 11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장쾌한 마수걸이 홈런과 시즌 첫 타점을 동시에 신고하며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쐈다.

2005년부터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이래 6년 만에 개인 통산 60호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는 3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클리블랜드는 보스턴을 8-4로 물리치고 개막 2연패 후 3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이승기, 광주FC 연패탈출 골 쏜다

9일 홈서 상무와 K리그 5R

광주 FC 미드필더 이승기가 팀의 연패 탈출을 위해 고향 무대에서 스파이크 끈을 맨다.

9일 오후 3시 광주 FC가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상주 상무와의 정규리그 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개막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2-3 역전승을 신고한 뒤 연패에 빠졌다. 6일 부산과의 리그컵 2라운드에서도 0-1로 고개를 숙였다.

승리에 목 마른 광주는 리그컵을 통해 첫 선을 보인 미드필더 이승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기는 금호고 3학년때 2006 한국 축구대상 고등부 MVP를 수상하며 촉망받던 유망주다. 울산대 주장으로 뛰며 지난해 전국 대학축구대회 득점왕도 차지했다.

그는 동계훈련 중 공격형 미드필더로 맹활약했지만, 개막을 앞두고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왼발목 부상을 당해 재활에 힘써 왔다.

이승기는 "태연한척 했지만 많이 힘들었다. 축구를 하면서 부상 때문에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아 억울하기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6일 부산과의 리그컵 경기가 이승기의 데뷔전이 됐다.

주말 상주 상무전에 나서는 이승기의 각오는 남다르다.

"아직 몸이 완벽하지 않지만 공을 찰수록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호흡도 좋고요. 팀 승리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걸 보여주겠습니다."

광주는 연패탈출을 노리며 9일 경기에서 승리 하지 못할 경우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다음 홈 경기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편 강원 FC 최순호 감독의 고별전이었던 강원과의 리그컵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전남 드래곤즈는 10일 오후 3시 성남 일화와 정규리그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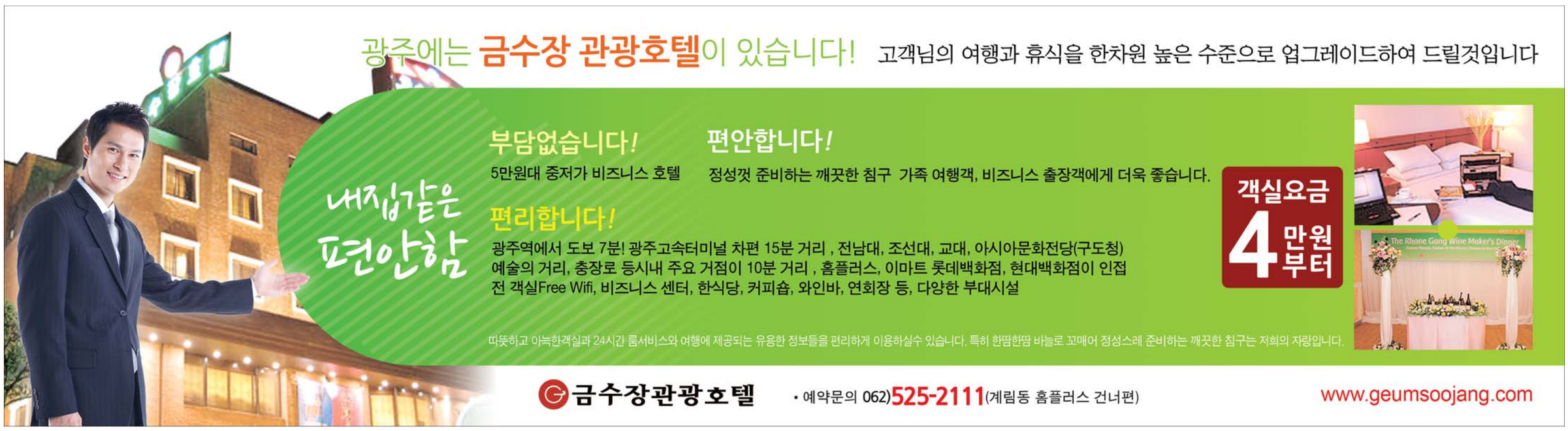
다시 일어선 나아름 "이젠 런던올림픽"

광저우 AG 불운 딛고 강진사이클대회 정상

한국 여자 도로 사이클의 간판 나아름(나주시청)이 아시안게임 불운을 딛고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나아름은 제58회 3·1절기념 강진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름은 지난해 11월 16일 광저우대학타운 벨로드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20㎞(80바퀴) 포인트 레이스 결승에서 선두권을 달리다 경쟁 선수와 부딪쳐 트랙에서 넘어져 메달을 따내지 못하는 불운을 겪은 바 있다.

장찬재(대한지적공사)도 남자 일반부 크리테리움 경기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나흘 동안의 성적을 합산한 결과 가장 좋은 기록으로 최석윤을 제치고 개인종합 정상에 올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